

즉시 보도용

2025년 7월 20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

LA 전역에서 65명 이상의 노숙자, ‘인사이드 세이프’통해 실내로 이주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시 전역에서 진행된 최신 ‘인사이드 세이프’대응 작전을 통해 65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실내로 이동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이드 세이프 작전은 이전에 시행됐던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숙인과의 신뢰를 구축하며, 자원이 마련되었을 때 이들을 주거와 지원 서비스로 연결하는 인사이드 세이프 현장 개입팀(Inside Safe Field Intervention Team)에 의해 조율 및 시행됐다.

이번 대응 작전을 통해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인들이 에코 파크, 할리우드, 사우스 LA, 볼드윈 힐스, 카노가 파크, 리시다, 노스 힐스, 웨스트레이크, 미라클 마일 등에서 실내로 옮겨졌으며, 이는 시의회 지역구 1, 3, 4, 5, 6, 8, 9, 10, 12, 13지구에 해당한다. B-roll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배스 시장은 “LA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노숙인 수가 감소했으며, 우리는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주, 인사이드 세이프는 시의 절반 이상 지구구에서 노숙인들을 실내로 이동시켰다. 우리는 협력을 통해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긴급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모든 노숙인이 안전하게 실내로 들어올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응은 LA노숙자서비스국(LAHSR)이 발표한 2025년 연례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사는 USC가 설계하고 미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배스 시장 취임 이전 대비 거리 노숙인이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스 시장이 거리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례 없는 종합 전략을 추진한 결과다. 과거에는 영구 주택이 마련되기 전까지 노숙인을 거리에서 방치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는 해결책 없는 고통을 초래했다. 이에 배스 시장은 이러한 접근을 거부하고 거리 위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영구 주택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2025년 노숙자 실태조사(PIT 카운트)결과 주요 내용

-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 배스 시장 취입 이후 거리 노숙 인구는 **17.5%** 감소했다. 이는 **2005년** 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2년** 간의 가장 큰 감소폭이다.
- 임시 거처, 텐트, 차량(RV 포함) 내 생활 등 비정형 거주 형태는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
- 로스앤젤레스시의 영구 주거 연결 건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스 시장은 노숙인들이 실내로 들어온 이후 받게 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동시에 노숙 관련 프로그램이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